빈 좌석 보여도 앉지 않는 선봉신앙

(여호수아 15:1~63)

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15.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19.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서 주었더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빈 좌석 보여도 앉지 않는 선봉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빈 좌석 보여도 앉지 않는 선봉신앙'
빈 좌석이 보여도 앉지 않는 것이 왜 선봉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빈 의자를 보면 앉고 싶습니다. 임자가 따로 없이 앉은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이 빈 좌석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70세가 다 되시는 권사님께서 지하철을 타셨는데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므로 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 서 있다가 내리면 된다고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더랍니다. 눈앞에 빈 좌석이 보이니 옳다구나! 털썩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몇 정류장이나 지나서야 깜짝 놀라서 황급히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스워서 산책을 하다가도 혼자 웃습니다. 눈에 보이는 빈자리를 따라 편하고 기분 좋

게 앉아계시다가 정작 내려야 할 곳을 지나치셨는데, 이게 우리 선민들의 일평생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려서 머물러야 할 가장 가까운 정착지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내려야 할 다음 정류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대상이나 사건이 생기면 그만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이나 대상이나 사건이나 사물보다 가까이 계신 우리의 다음 정류장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지나쳐버려서, 우리의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일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 일에 주저앉는다.'는 것은 그 일을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좋다고 여겨지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쁘다고 여겨지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렇게 그 일에 마음이 달라붙어서 앉아 있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선민인 내가 '눈앞의 사물과 대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시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선민인 내가 무슨 일을 대할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버려두실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이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 정답을 지나쳐버리는 것이고, 눈앞의 빈 좌석에 앉는 바람에 마주하게 되는 사건과 사물과 대상에 대해 취해야 될 올바른 반응과 판단과 태도와 행동과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서 하나님께 머물러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텐데 다 지나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어떠한 급박한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내려야 될 다음 정류장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선봉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선봉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 보여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눈앞에 어떠한 것이 보이더라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고 내려서 하나님께 정착하는 신앙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믿음의 모델이고, 빈 좌석 보인다고 털썩 주저앉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지파가 최초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은 사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유다지파 기업의 동서남북 경계를 언급하시는데, 사실 유다는 야곱의 생물학적 장자가 아닙니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시므온이 차남이고 삼남이 레위입니다. 레위인은 어차피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 제쳐놓고서라도,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을 제치고 실질적인 장자의 위치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창49:8절의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야곱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유다가 분배받은 지역의 동서남북 경계를 보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전체 지역 중에서 요지이고, 다른 지파들보다 굉장히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지파의 일

부 영역이 베냐민과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다시 할당 될 정도로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유다지파 내의 125개의 성읍의 이름이 낱낱이 거명되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갈렙이 드빌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125개의 성읍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루살렘도 유다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 도중에 땅 점령 이야기를 삽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헤브론과 그 주변의 성읍들을 갈렙이 점령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빌 성읍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빌도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빌'은 '기랏 세벨'이라고도 부르는데 '문서와 책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드빌은 '아낙 자손이 이루어 놓은 고대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 족속 성읍 중에서도 아주 견고하고 굉장히 안정된 문명을 발전시키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드빌의 문명이 압도적인 것으로 비추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드빌에 대해서 갈렙이 자기 스스로 나서서 정복을 하지 않고 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의 중심지인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는 것입니다. 유다 전체의 대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것은 이 드빌이 아낙 자손들의 문화의 중심지였고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갈렙의 조카 옷니엘이 나서서 이 성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봉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게 하여 125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땅을 분배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선봉신앙이 어떤 내용이기에 갈렙이 옷니엘을 사위로 삼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갈렙의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앞의 민수기에서부터 전부 아낙 자손인 거인족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바네아 정탐사건 때에 열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간담을 녹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열 명의 정탐꾼이 45년 전에 보았던 곳이 드빌인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와 드빌을 정탐하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봉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이 거인 족속과 갈렙을 연결시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는 하나의 포석인 것입니다.
거인 족속은 눈에 띄는 자들이고, 드빌은 그들이 이루어낸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때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한 사람만 앞에 나서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마음이 녹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읍을 보고 문명이 꽃피운

것을 볼 때에 마음이 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아낙 자손의 문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하나님께 마음을 정착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대로 아낙 자손에게 마음이 달라붙었다면, 다른 정탐꾼들 같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정착시킨 갈렙은 거인들을 자기의 밥으로 보게 됩니다. 갈렙은 그 45년 전의 동료였던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지나쳤던 것을 기억하며, 딸 악사를 내걸고 유다지파에서 선봉신앙을 가진 자를 찾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옷니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게 되는데 놀랍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딸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께 땅을 요구합니다. 사실 딸은 땅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참금'이라고도 하는데 딸들이 시집을 갈 때에 땅을 지참금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영토의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왜 딸의 요구에 샘물까지 내주었을까요? 자기의 딸을 내주면서 영적으로 자기의 선봉신앙을 이어갈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갈렙 자신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영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자기 몸에서 나오지 않은 자를 아들로 삼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옷니엘을 찾아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 때까지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선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갈렙와 옷니엘이 보여주는 선봉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중앙 성소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상번제'가 뜻하는 것은 125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가서 앉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양이 성전에서 죽고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내 마음이 내려서 머물러야 될 다음 정류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곧 내려야 하시기 때문에 출입구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빈 좌석이 보이니 당신이 내리셔야 할 곳도 잊으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버리셨는데 그 기둥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성소의 의미인 것이고 그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것이고, 십자가 붙잡고 있으면 다음 정류장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기 때문에 눈앞의 빈 좌석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선봉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앞에서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마음이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눈앞에 어떠한 급박한 일이 전개되고, 어떠한 귀중한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우리 마음이 내려야 될 다음 정류장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갈렙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붙지 않고,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아낙 자손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렸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의 밥’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45년 뒤에 그 밥을 먹으면서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를 찾기 위해서 딸을 내놓습니다. 그 딸이 시집을 가며 땅을 구하는 부당한 요구를 했을지라도 허용한 것은 사위 옷니엘을 영적인 의미에서 아들로 삼았던 것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비밀입니다. 옷니엘에게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선봉신앙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옷니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 멋있는 본문입니다.

땅만 분배한 것 같고 성읍만 나열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125개 성읍에 흩어진 유다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선봉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빈 좌석이 보여도 털썩 주저앉지 않는 선봉신앙을 가지고, 다음 정류장이신 하나님께 내리는 사람들로 살라고 땅 분배를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선봉신앙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봉신앙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지나치지 않음을 통하여 갈렙과 옷니엘 같은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눈앞에 언제나 가까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내려야 될 다음 정류장임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하여 오늘도 철저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앞에서 십자가를 꽉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